

山村의 너름저너 (舊稿)

萬 海

산인그림자는 집과집을 덮고
 풀밭에는 이슬기운의 난다
 풀동의 물 이고 물짓는處女는
 거름수수 밭채는들의 귀일을 보신다
 울감자를 캐여지고오는 사람은
 시종한들을 자주보면서 맛본거름을친다
 살인골에 배물은 송아지
 겨울나무에서 잎이나지 않는다
 동거리만 입은 우의들은
 서로다루어 나무를 안아들인다
 한아씩 돌희 돌아가는 가마귀는
 이데로 가는지 알수가 없다

甘露塔

趙 宗 立

우리님 가지단을 참아緣土 이슬것가
 가셔도 안가시냥 露珠三十 주첫서라
 큰뜻을 알아반사와 고쳐모쳐 운니다

桔 香 樹

넘기신 아골이때 가릴무엇 잊스리만
 그래도 남의道蹟 찾아보고 심소이다
 七百年 지난오늘의 더욱참고 심소이다

(七月二十五日 松廣寺)

故金寶輪先生을吊함

韓 永 圭

是年七月十日이었다
 지라한七月의장마는게이지않고 盤龍山기슭으로하얏없이
 도나리는바는 城川江水를볼니의물결이요 江안된길가에늘
 어진바들은 잇다습바람의스치갈때면 맥없이추기실은송부
 춘다

嗚呼!物色도되급흔대 心思도沒涼하다 그는때마금金寶
 輪先生은入寂하셨다 朝鮮佛界에는 指導者의한분은없었다
 嗚呼!先生님!이것이무슨消息인잇가 三界가火宅이요四
 生이虛幻임은 아찌세삼스럽게말은아니나 先生의滅度가아
 다지도速하실줄이야 公에도뜻하지안이후였음니다 諸佛諸
 祖는 因緣이다하시면滅度하시오니 先生님도이世上에因緣
 이다하실인가요 嗚呼先生이시여 而今에安在하시닛가
 無去無來亦無住라 往來가 無得하시나 不生不滅道理속에
 示勝이自在하심인줄알거나와 우리집원봉누구의講堂하오며
 甘露法水を渴望하는大家에게 무엇유추을닛가 오! 先生
 님! 다시이世上에오시지안올리실닛가 아무리愛河를떠나
 고者想을버렸드래도 가든길도돌아시키고 生戀은되풀이하는
 수도있지안습닛가

先生님!先生님은只今에 般若龍窟에몸을일어 生死海를
 건너가서 蓮華光土에安住하시것지요 그러나先生은그것이
 오히려물리지안습니다 괴로운世界에 괴로운衆生을爲하여
 오래오래教化하심이 佛子の義務이요一生을犧牲하여衆生救
 함의 大慈悲가안림가합니다 萬若果然이라면 先生의가심
 이념은速하시고 先生의教化가범우도적었습니다

오!先生님!先生님의마즈막으로남기고가신遺業詩는 아
 직도반의머리에새롭습니다 「圓覺堂及圓副室 染淨無碍君知
 否 吾於此處入涅槃 三世佛祖證證明」이四句佛는 先生
 님의平生修養을 如實히表現하신法門으로 人生의虛假를비
 웃고 假面을쓰는무리를餘地없이嘲笑하심인가합니다 그렇습
 니다先生님의말씀과반의世上의무리는 佛은것을羨慕함으로
 佛 國爭을惹起하고 남은속이고 나만살려고한답니다 淨
 을종아하고汚를살며하며 利己에汲々하고 公事에無心한것
 은 두말을해야지안는답니다 先生님記憶하심닛가 西으로
 不壞에 東으로는 江陵에 北으로는元山 中央으로京城에
 이같이쉬일새없이教化의길을잡으시던일이 다시금그리우시
 六五頁의遺稿